

오비디우스의 <변신이야기> 국내 번역들

로마 시인 오비디우스의 <변신이야기>는 그 자체로서보다는 토마스 불핀치 신화집의 원천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내가 아는 한, <변신이야기>의 우리말 번역은 모두 5종이다. 그 중에서, <둔갑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나온 이윤기 님의 번역(평단문화사, 1989)은 같은 역자의 다른 판본이 있으니 제외하고, 나머지 네 가지를 살펴보자. 이 중 두 가지는 운문형식으로 인쇄되었고, 두 가지는 산문형식을 취했다.

우선 운문 번역들.

먼저, 라틴어 원문에서 옮겨진, 천병희 교수의 번역(<원전으로 읽는 변신이야기>, 숲, 2005). 말할 것도 없이 좋은 번역이고 내가 적극 추천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언급은 맨 뒤로 미루자.

다음으로 영어판(인디애나 대학 판, Rolfe Humphries역)에서 옮겨진 김명복 교수의 번역(<오비드 신화집 - 변신이야기>, 숲, 1993). 문장이 매끄럽고 매우 부드럽게 읽힌다는 것이 장점이다.

그렇지만 이 번역은 행 수를 표시하지 않아서 일차적으로 가치를 잃었다. 서양에서 고전으로 꼽히는 작품들의 국내 번역이 꼭 필요한 이유 중 하나가, 그래야 다른 저자들이 그 작품을 언급할 때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점인데, 이 번역으로는 그런 대조 작업이 매우 어렵게 되었다.

더 큰 문제는 이것이 영어 번역에서 옮긴 중역(重譯)이라는 데서 생긴다. 애당초 이 번역의 영어판 원문이 조금 약한 표현들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말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더욱 약한 표현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체의 머리말이라고 할 수 있는 처음 몇 줄에서도 많은 중요한 개념이 사라져버렸다. 가령, 시인은 자신의 ‘영혼이 (이 주제를 향해 자신을) 물고간다(animus fert)’고 했는데, 그것이 영역본에서는 ‘나의 의도는(my intention is)’으로 바뀌고, 우리말번역에서는 ‘이야기하겠다’가 되어 버렸다.

또 다른 문제점은 고유명사 표기법이다. 보통 ‘펜테우스(Pentheus)’라고 적는 인물은 ‘펜세우스’가 되고, ‘키타이론(Cithaeron)’ 산은 ‘치타에론’이 되었다. 또 ‘크레테’ 섬은 ‘크레트’로, ‘오퀴로에(Ocyrhoe)’가 될 것이 ‘오키르호에’로, 그리고 가장 큰 혼란을 주는 것으로 ‘옵피테르’가 될 이름은 ‘조브(Jove)’도 아닌 ‘조부’로 되어 있으니, 이 번역으로 신화를 공부한 사람들은 다른 신화책들을 읽기가 상당히 곤란할 것이다.

때로는 뜻을 가진 고유명사들이 모두 영어 발음대로 옮겨져 있는데, 가령 악타이온이 사슴으로 변하여 자기 사냥개들에게 물려죽는 장면에는, “형그리, 파워, 킬러” 같은 개 이름들이 나온다. 라틴어 원문을 찾아 라틴어 식으로 적어주든지, 아니면 차라리 우리말 뜻대로 옮기는 것이 낫겠다.

이번엔 산문번역들.

우선, <변신이야기>의 대표처럼 되어 있는 이윤기 님의 번역(<변신 이야기>, 민음사, 1998). 일반 독자가 읽기에 아주 부담없고 매끄러운 문장으로 되어 있으나, 원문(펄킨 판, M. Innes역, 1955)에 침삭과 변형이 많이 가해졌다. 번역이라기보다는 번안에 가깝다.

좀더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지적하자면, 이 번역이 거의 모든 형용사를 없애거나 변형

해서 문학작품 번역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점, 역자께서 때로는 (가령, 카드모스와 용의 싸움에서처럼) 세부묘사에서 원문을 지나치게 벗어나 상상력을 발휘한다는 점, 또 때로는 전통적으로 알려진 것과는 다른 결과를 지어낸다는 점 등이다(예를 들면, 종교적 광기에 사로잡힌 어머니에 의해 목이 뽑혀 죽은 펜테우스를, 어머니의 박치기에 의해 머리가 산산조각난 것으로 바꾸어 놓았다.).

끝으로 김영락 교수의 번역(<변신>, 전망, 2000). 이 번역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도 절판되어서 나도 잘 몰랐었는데, 이번에 보니 영어원문(헝귄 판과 Loeb 판)에 상당히 충실한, 의외로 좋은 번역이었다.

고유명사표기 문제와 중역들이 보이는 일반적인 문제점 외에 이 번역이 갖는 문제들은 대체로 <변신이야기>를 문학작품으로서보다는 그냥 신화집으로 보는 데서 나온 듯하다. 가령, 태양신의 아들인 파에톤이 자기 친구와 대화하는 장면에서 나온, “너의 아버지는 진짜 신이 아니야. 그것도 모르면서 빠지고 있어 짜식이...”(39쪽) 같은 구절은 ‘독자의 눈높이에 맞춘’ 번역이긴 하지만, 옛 고전작품, 특히 서사시에 나타나는 ‘우아함(decorum)’이라는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아폴론에게 음악 시합으로 도전했다가 가족이 벗겨져 죽는 마르쉬아스가, “왜 남의 껍질을 벗기는 거요”(159쪽)라고 외치는 장면도, 라틴어 원문에 충실하자면 “왜 내게서 나를 벗기시는 거예요?”(quid me mihi detrahis, 6.385) 정도가 될 것이었다. 독자의 이해수준을 고려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문학은 사라지고 이야기만 남았다.

그런데 위의 두 가지 사례는 요즈음의 번역자들이 처한 곤경을 보여주는 듯도 하다. 역자들이 일반독자의 수준과 일상어에 의해 압박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다. 내가 억지로 찾아낸 천병희 역의 문제점도 이것과 연관되어 있다.

파에톤이 태양신의 마차를 잘못 몰아 세상이 불타는 장면에서 나온 구절이다. “내가 탄식하는 이런 피해는 약과였다.”(89쪽) 원문은 ‘나는 작은 것을 불평하는 중이다’ 정도가 될 구절(parva queror, 2.214)이다. 사실 이런 종류의 ‘일상어 역’은 같은 역자의 <아이네이스> 번역(숲, 2004)에 좀 더 많이 등장한다. 베르길리우스가 좀 더 전하기 어렵고 미묘한 문장을 구사하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찬성하기 어려운 번역어구가 몇 군데 더 있었다. 혹시 역자께서 근래에, 독자의 수준에 맞춰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이것은 내가 정말 애써서 겨우 찾아낸 ‘단점’의 사례이다. 어떤 이는 가독성 문제, 즉 천병희 교수의 문장들이 읽기 힘들다는 점을 지적하는데, 사실 이 문제는 해결하기 힘든 것이다. 원전에 충실하고 정확하면서도 매끄럽게 읽히는 문장이란 거의 ‘등근사각형’에 가깝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독자라면 오히려 너무 매끄러운 번역문을 의심해야 한다.

그렇지만 천병희 교수의 번역이라고 해서 현재 나와 있는 상태대로 곧장 또 하나의 원전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번역의 질과는 별도로, 편집 상태에 약간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 번역의 장점 중 하나가 행 수를 표시해서 찾기 쉽고 인용하기 쉽다는 것이었는데, 중간중간 다섯 행에 들어가야 할 내용을 여섯 행으로 인쇄해 놓았다. 물론 원문의 행수를 곁에 써 놓았으니 찾아보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번역본만으로 인용할 때는 곤란한 문제가 생긴다. 완벽한 판본이 되려면 고쳐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네 가지 판본을 살펴보았는데, 두 가지는 이미 절판되어 시중에서 구할 수 없

으니, 사실 이윤기 역과 천병희 역만 고려해도 되겠다. 나는 아무래도 늘 원전을 봐야 하는 처지인지라 천병희 교수의 번역을 앞세우고 있지만, 사람마다 취향과 필요가 다르니 저마다 자신에게 맞는 판본을 선택하면 될 것이다. <변신이야기>를 신화집으로, 매끄러운 문장의 작고 부담 없는 판형으로 읽고 싶은 분은 이윤기 역을, 이 작품을 문학작품으로, 원전에 충실한 장중한 문장으로 읽고 싶은 분은 천병희 역을 보시면 되겠다. 내가 이처럼 다소 무책임하게 산술적인 중립성을 가장하는 것은, 숲 출판사의 판본이 너무 두껍고 무겁기 때문이기도 하다. 고전의 무게에는 걸맞지만, 오비디우스의 가벼움에는 어울리지 않는 물성(物性)이다.